

# 電氣2세기의 目標는 에너지自立과 電力文化 暢達

—來日의 責任완수 다짐하는 決意의 마당 되길—



朴 正 基  
(韓國電力公社 社長)

옛 성터에 텅구는 한조각 기왓장에도 그속엔 조상의 얼과 슬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랜 것을 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낳은 그 시대로부터 오늘을 거쳐 아득한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을 바라보는 歷史意識은 유구한 세월 속에 쌓여져 내려온 그 국가와 민족의 靈魂이며, 集團의 精神文化를 형성하는 공동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崔昌洛동력자원부 장관님, 國會상공위원장님, 존경하는 내빈선배 그리고 電力人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복궁의 옛 乾清宮에 전기불을 밝힌지 꼭 1백년이 되는 이 뜻깊은 해를 맞아 기념행사를 벌이는 것도 우리 電力事業이 걸어온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位置한 오늘을 확인 하면서 보다 밝은 來日을 조명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韓國電氣 1백년」은 곧 우리 民族이 겪어 온 受難과 絶望, 그리고 榮光의 역사, 바로 그 모습이었다고 하겠습니다.

舊韓末, 그 오욕의 시대에 첫 출발을 했던 우리의 電力事業은 近代史의 아픔 만큼이나 심한 激浪속에서 자라 왔습니다.

북괴가 저지른 48년 5·14斷電과 6·25動亂과 같은 悲劇은 電力事業에 있어서는 차라리 死刑

“ 賦存資源이 없어 조상 대대로 고통을 받아온 이 나라에 技術自立을 통해 에너지의 自給自足を 이룩하는 일은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제 1 차적인 課題입니다. 이와 함께 電力事業이 産業社會를 이끌어온 「文明」의 차원에서 우리 公社가 내세운 기업이념인 電力文化의 暢達이라는 「文化」의 차원으로 높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宣告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천년사에 수 없이 겪었던 外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피어 올랐던 것처럼, 우리 電力人 선배들은 그 역경을 이겨내고 참으로 놀라운 새로운 歷史를 창조해 낸 것입니다.

해방이 되던 45년당시 19만킬로와트에 불과하던 電力設備가 오늘날 그 90배가 넘는 1천8백만킬로와트로 늘어난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그 과정 속에 아로새겨진 電力人 들의 눈물과 땀과 집념을 생각하면서 숙연한 마음을 금할길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韓國電氣1백년」을 깊은 감회와 함께 맞으면서, 이같은 오늘이 있기까지 온갖 정성을 다바쳐 온 많은 선배 電力人 여러분과 그 어려움속에서도 적극 저희를 밀어 주신 政府와 關係機關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全國의 電力人 여러분, 이와 같이 電氣1세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우리는 이제 다시 電氣2세기의 벽찬 出發點에 있습니다. 또 이時期는 우리 國家와 民族이 5천년 史上 유례 없는 雄飛의 나라를 펴고 世界史의 主役으로 등장할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가 國家經濟의 발전을 선도해 왔

던 것처럼 이 거창한 새 歷史를 건설해 나갈 역할 또한 우리의 책무라 하겠습니다.

지나간 電氣1세기가 電源開發의 시기였다면, 이제 電氣2세기의 목표는 에너지의 自立이며 그리고 이를 통한 電力文化의 暢達입니다.

賦存資源이 없어 조상 대대로 고통을 받아온 이 나라에 技術自立을 통해 에너지의 自給自足を 이룩하는 일은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제 1 차적인 課題입니다.

이와 함께 電力事業이 産業社會를 이끌어온 「文明」의 차원에서 우리 公社가 내세운 기업이념인 電力文化의 暢達이라는 「文化」의 차원으로 높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電氣2세기를 맞는 오늘, 우리의 責任은 지난 1백년에 못지 않게 크고 무거운 것이라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과거와 오늘을 自祝하는 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來日의 완수를 다짐하는 굳은 決意의 마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국의 電力人들과 함께 오늘의 「韓國電氣1백년」을 祝賀하며, 電力事業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一九八七年 四月 十日